

# 카타르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11천 km <sup>2</sup> (한반도의 1/20)	G D P	1,681억 달러 (2017년)
인구	274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61,497달러 (2017년)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통화단위	Qatar Riyal (QR)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노선	환율(달러당)	3.64 (2017년)

-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타르는 인구 274만 명, 국토 면적 11천 km<sup>2</sup>에 불과한 소국임.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온 이주민이 많고, 수니파 이슬람교 외에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등 인종·종교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국가임.
- 원유 및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자 OPEC 회원국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인당 GNI 세계 5위의 경제 부국임.
- 절대왕정 국가로 19세기 중반 이후 Al Thani 가문이 왕위를 세습하고 있음. 1995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Hamad 前국왕은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현재 그의 아들인 Tamim 국왕의 통치 하에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중립·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하여 서방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분쟁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7년 6월 GCC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및 아랍국가 등의 카타르에 대한 단교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e</sup>
경제성장률	4.4	4.0	3.6	2.2	2.5
소비자물가상승률	3.2	3.4	1.8	2.7	0.9
재정수지/GDP	22.6	15.3	5.6	-3.9	-1

자료: IMF.

####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부문의 침체로 경제성장률 하락

○ 카타르 경제는 2000년대 초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투자 증대에 힘입어 2006~10년 중 연평균 18%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였으나,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여 2016년 2.2%의 저성장을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회복세 및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로 인해 전년대비 약간 상승한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12월 일일 원유생산량을 3,360만 배럴에서 3,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한 감산 합의 이후 2017년 5월 및 11월 각각 감산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감산 규모는 2018년 12월까지 유지될 계획임.

- 재정수입 감소에 따라 카타르 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보조금 축소 등 다양한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22년 월드컵 준비 관련 경기장\*\*, 교통·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는 2016년 기준 249억 달러로 2015년도에 비해 4% 증가하였으며, 2017년 주요 프로젝트 예산은 2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음.

\* 2016년 12월 카타르석유공사(QP)는 국영 가스 생산회사인 카타르가스(Qatargas)와 라스가스(RasGas)를 카타르가스(Qatargas)로 합병할 계획임을 밝혔고, 2018년 1월 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연간 20억 리얄(약 5억 5천만 달러)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족한 자원 마련을 위해 2개 경기장을 민간자금조달(PPP)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참여기업이 없어 기존 EPC 방식으로 발주됨(현재 8개 경기장 건설에 대한 입찰이 모두 완료되었음)

\*\*\* 도하 지하철 프로젝트로 레드라인 북부 및 남부, 그린라인 및 주요 역사에 대해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전체 공사의 62%를 진행하였음.

□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0.9%까지 하락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유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최근 수년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하였음.

\* 카타르 리얄(QAR) 환율은 2008년 이후 달러당 3.64리얄 유지

○ 2015년 물가상승률은 원유·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전년(3.4%) 대비 1.6%p 하락한 1.8%를 기록함. 그러나 2016년에는 연료보조금 폐지\*,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3.0%로 상승할 전망이다.

\* 2016년 1월 무연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여, 무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26 달러에서 0.34달러로 약 30% 상승

□ 긴축 재정정책 실시 및 국제유가 회복세의 영향으로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감소

○ 카타르는 2014년까지 고유가에 힘입어 GDP 대비 10%를 상회하는 막대한 재정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진행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수가 급감한 반면, 재정지출은 각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지속으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6년 최초로 재정적자를 기록함.

○ 2017년 정부예산 중 재정지출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보조금 축소 등 긴축 재정정책 실시로 전년(556억 달러) 대비 2% 감소한 545억 달러를 책정하였고, 재정수입은 국제유가 회복세의 영향으로 전년( 429억 달러) 대비 9% 증가한 467억 달러를 책정하면서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 1.0% 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12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은 저유가 시대에 대비한 세원 확보에 필요성으로 부가세 도입에 합의하였고 카타르 또한 2018년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2017년 6월 발생한 카타르 단교 사태의 장기화

조짐으로 카타르의 부가세 도입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두 국가에서만 부가세가 도입되었음.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천연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로 에너지 가격 및 수급변동에 취약

○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서도 석유 화학 분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이에 경제성장이 원유·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변동과 생산량 추이에 크게 좌우되는 경제구조임.

- 2016년 기준 에너지 부문이 GDP의 30% 이상,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타 중동 산유국들과 경제구조가 유사함.

#### □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 부문이 취약

○ 카타르는 2015년 기준 총인구의 88.4%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국인 의존도가 매우 높음. 아울러, 2022년 월드컵 개최 확정에 따른 인프라 건설 확장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카타르 인구 추이(만 명) : 222('14) → 244('15) → 262('16) → 274('17)

○ 자국민은 대부분 공공 부문에 종사함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은 외국인 이주 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짐. 그러나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 민간 부문의 발전이 더딤.

### 나. 성장 잠재력

#### □ 원유·천연가스 등을 다량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

○ 한반도 면적의 1/20에 불과한 소국이나 2016년 기준 원유 252억 배럴(세계 14위), 천연가스 24.3조 m<sup>3</sup>(세계 3위)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OPEC 회원국임.

-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최대의 단일가스전(North Field, 전세계 매장량의

15% 차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 생산량 유지 시 138년 동안 채굴 가능한 규모로 추정됨.

## 다. 정책성과

### □ 장기 국가개발계획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추진, “2022년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 추진 지속 지속

○ 카타르 개발기획처(GSDP)는 에너지 중심 경제구조 탈피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8년 10월 장기 국가개발계획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 “국가발전전략 2011~2016”을 수립함.

- 정부는 “국가 비전 2030”에서 5대 과제\*와 4개 분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22년 월드컵 개최와 연계하여 향후 10년 간 교통·물류, 의료 등 인프라 구축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①현대화, ②전통 보존, ③관리 성장과 자유로운 확장, ④환경을 생각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⑤노동력 개발 및 노동시장 균형

\*\* ①인적자원 개발, ②사회개발, ③경제개발, ④환경개발

○ 카타르는 에너지 자원으로 축적해온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정부 지출의 절반을 인프라 구축 및 2022년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 배정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 □ 특별경제구역 조성,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유입 증진 도모

○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 카타르경제구역공사(Manateq)를 설립하여, 2018년까지 3개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2015년 사명을 마나텍(Manateq)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업체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실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음.

\* Ras Bufontas, Um Alhoul, Al Karaana

○ 아울러, 2015년 9월 ‘신규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조항 삭제’, ‘카타르 금융센터(QFC) 활용 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해 신규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

###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e</sup>
경 상 수 지	60,461	49,410	13,751	-8,324	3,486
경 상 수 지 / GDP	30.1	23.7	8.3	-5.3	2.1
상 품 수 지	101,861	95,557	48,798	25,320	32,535
수 출	133,336	126,703	77,294	57,254	67,665
수 입	31,475	31,145	28,496	31,934	35,130
외 환 보 유 액	41,602	42,734	36,500	30,794	15,522
총 외 채 잔 액	163,373	166,403	182,048	230,321	241,304
총 외 채 잔 액 / GDP	80.2	80.7	110.6	147.9	136.7
D S R	6.6	5.4	8.1	10.8	10.8

자료: IMF, EIU, OECD.

□ 2017년 경상수지는 단교사태에도 불구하고, 2%대 흑자 기록

- 카타르는 2011~14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천연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와 GDP 대비 20~30%대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음.
- 경상수지는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천연가스 수출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규모가 작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그러나, 2014년 7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출 감소로 2015년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한 8.2% 흑자를 기록하였음. 2016년에는 저유가 지속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1.8%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단교사태로 인한 상품·서비스 수입 감소 및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라 2.1%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카타르석유공사(Qatar Petroleum)가 자회사(Nakilat)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분한 LNG수송선을 보유하고 있고, 단교 사태에 따른 페르시아만 호르므즈 해협이 봉쇄가능성도 거의 없어 LNG 수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상품 수출금액은 626억 달러로 전년(573억 달러) 대비 9.2%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액은 감소 추세이나, GDP 대비 183%에 달하는 국부펀드 보유**

- 외환보유액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4년 42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외환보유액은 155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음.
- 아울러,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3,35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QIA, 세계 14위) 운용을 감안 시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편임.
-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GCC 국가들이 국부펀드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존 투자를 청산하고 국부펀드 자금을 자국의 재정부족분 충당에 사용한 데 반해 카타르는 지속적인 해외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2013년(2,465억 달러) 대비 26% 증가한 3,11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36% 내외로 높은 편**

-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중반 이후 저유가 추세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81%) 대비 55%p 증가한 13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은 천연가스 개발 및 LNG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GDP 대비 비중이 GCC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17년 GCC회원국 총외채잔액/GDP(%): 오만(75.5), 바레인(68.0), 아랍에미리트(61.6), 쿠웨이트(50.5), 사우디아라비아(22.9)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Tamim 국왕의 통치 아래 정치안정 지속

- Tamim 국왕은 2013년 6월 아버지 Hamad 前국왕의 갑작스러운 왕권 이양에 따라 33세의 나이에 새 국왕으로 즉위한 후, 단기간에 신규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Hamad 前국왕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 Hamad 前국왕은 2003년 3권 분립의 토대가 된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함. 이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에 의회 기능 보장, 종교법원과 일반 법원의 일원화 등 입법·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함.
  - 아울러 Tamim 국왕은 즉위 직후 총리와 에너지부 장관이 각각 카타르 투자청(QIA)과 국영석유회사(Qatar Petroleum)의 CEO를 겸임하던 관례를 종식시켜, QIA와 Qatar Petroleum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왕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낮은 부정부패 수준 등 정치불안 요인이 거의 없어 당분간 정치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중립 외교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로 사회안정 지속

- 카타르는 '중동의 스위스'를 표방하며 중립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를 통해 각종 테러가 빈번한 중동 지역에서 테러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음.
  - 카타르는 이슬람 수니파 국가로서 아랍 각국의 이슬람주의 세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신교·가톨릭 신자를 위한 교회·성당의 운영도 허용하는 등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함.
  - Global Peace Index 2017에 따르면 카타르의 세계평화순위는 163개국 중 30위로 전년(34위)보다 4계단 상승하였으며,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함.

### □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사회불안 요인이나 통제 가능한 수준

- 절대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민소득\* 및 풍부한 복지혜택에 힘입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 등 사회불안 요인은 미미한 수준임.

- \* World Bank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타르는 2017년 기준 1인당 GNI는 75,660달러로 맨아일,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에 이은 세계 5위이며,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GNI가 5만 달러를 상회함.
- 아랍 몇몇 국가에서 시민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현재까지 왕정국가인 카타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없었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Democracy Index 2017에 따르면, 카타르는 167개국 중 133위로 독재(Authoritarian) 국가에 해당함.
- 최근 카타르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 관련 건설 부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급증에 따라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 체불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적 유화책을 병행하여 소요사태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자국민은 전체 인구 약 263만 명 중 약 8% 수준으로 자국민 대다수가 정부기관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될 비숙련 단순노동직 및 고숙련 전문직 수요는 대부분 해외에서 고용해온 외국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음.
- 카타르 2022년 월드컵 최고위원회는 비영리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제기한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근로자들의 보건 및 안전 기준 관련,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권리단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 3. 대외관계

- GCC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및 아랍 국가 등의 카타르에 대한 단교 선언
  - 2017년 5월 카타르 국영 언론사인 Qatar National Agency(QNA)가 카타르 타밋국왕이 군사학교 졸업식에서 이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우호적인 연설을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테러집단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 하였고, 이후 UAE,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몰디브, 모리셔스, 모리타니, 세네갈, 코모로가 참여하여 총 11개국이 카타르와 국교 단절을 선언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규정

- 표면적 이유는 카타르가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카타르 방송사인 알-자지라가 걸프 내부의 문제점들을 보도하였던 점, 카타르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는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점이 주요 원인임.

\*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사우스파(South Pars)를 이란과 공유

- 주요 단교조치 내용은 ① 48시간 내 자국 내 카타르 외교관 추방 및 카타르 주재 자국 외교관 소환, ② 카타르와의 육상, 영해, 영공을 통한 국경 봉쇄, ③ 자국 내 카타르인 추방 및 카타르와 민간인 상호 방문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 4개국은 ①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② 이란 및 터키와의 관계 중단, ③ 무슬림형제단 지원 중단 등 13개 외교 정상화 조건을 내세웠으나, 카타르는 이를 모두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란 및 터키와의 외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음에 따라 단교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 단교 선언 직후 악화되었던 교역, 금융, 주가 등 회복세

- GCC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2017년 1분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카타르 전체 수입의 9.5%, 4.5%를 차지했으나 단교 발생 이후에는 두 국가를 합쳐 3% 미만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단교국이 아닌 오만과 쿠웨이트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123%, 72% 증가하였음.

- 특히 식료품의 경우 수입의 약 30% 가량을 단교 선언국인 사우디, UAE를 통해 수입해 왔으나, 단교 이후 이란, 터키, 오만 등으로의 신규 직항로를 즉각 구축하여 교역 루트의 다변화가 전망됨.

- 카타르 국내 은행에서의 외국인 예금액은 단교 4개국으로부터의 예금이 거의 인출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카타르 경제의 안정세로 인해 그 외국가들로부터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면서 2017년 12월 단교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임.

\* 1,846억 리얄('17.5월) → 1,371억 리얄('17.12월)

- 카타르 주식시장 또한 단교 선언 이후 10,000포인트 수준이었던 Qatari

Index가 지난 6년 이내 최저치인 7,700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넉넉한 배당금 및 경제회복으로 2017년 11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9,400선까지 주가가 회복됨.

- 한편 IMF는 2017년 8월 성명을 통해 사우디 주도 4개국의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정부가 경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카타르 정부가 봉쇄조치로 중단된 교역국들을 신속하게 대체하여 식량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마련하였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의 건축 자재 공급도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다각적·독자적 실용주의 외교노선 유지

- 카타르는 실리와 균형을 중시하는 중립 외교노선을 견지해 역내 아랍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방 국가들과도 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과의 안보 협력 및 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는 친 서방 노선을 취하는 동시에 이란, 시리아 및 리비아 등 역내 반미 국가들과도 적절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외교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 GCC 회원국 중 오만과 더불어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강경 이슬람 세력과 온건·중도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함. 또한 예멘 정부-후티 반군, 이스라엘-하마스 간 갈등 중재를 통해 아랍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을 제고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높은 총외채 비중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위험은 낮은 편

-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로부터의 여신총액 202.2억 달러 (단기 3.9억 달러, 중장기 198.3억 달러)중 연체금액은 90만 달러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

## 2. 국제시장평가

### OECD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2013년 1월 이후 3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신용평가 3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에 의한 단교 사태로 촉발된 중동 4개국의 對카타르 경제봉쇄 조치로 카타르의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AA-’ 수준의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2 (2018. 4)	B1 (2016. 11)
OECD	3등급 (2018. 1)	3등급 (2017. 1)
Moody's	Aa3 (2017. 7)	Aa3 (2017. 5)
Fitch	AA- (2017. 8)	AA (2017. 6)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4년 4월 18일 (북한과는 1993년 1월 11일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1984), 문화협력협정(1987), 투자보장협정(1999), 항공협정(2009), 이중과세방지협정(2009), 치안협력협정(2010), 고위급전략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2012), 군사협력협정(2014)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12월말 기준 90건, 71백만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카타르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904	674	536	435	자동차, 전선, 건설광산기계
수 입	25,723	16,475	10,081	11,267	원유, 천연가스, 석유
교역규모	26,628	17,149	10,617	11,703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2위 수입대상국

-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2위 수입대상국(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으로, 2017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1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제15위 교역국가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선,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등임.

V. 종합 의견

- 카타르는 원유·천연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로 2000년대 중반 자원개발과 연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을 달성함.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 둔화되어 2017년 2.5%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출액 및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2016년에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쌍둥이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2017년 국제유가 회복세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플러스 전환하였음.
- 2013년에 즉위한 Tamim 국왕은 신규 내각 구성 및 Hamad 前국왕의 개혁정책 이행 등을 통해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중립노선 표방으로 타 중동 국가에 비해 테러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도 미미한 수준임.

- 2017년 6월 GCC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및 아랍국가 등은 카타르에 대한 단교를 선언하면서 카타르와의 육상, 영해, 영공을 통한 국경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카타르 정부는 봉쇄조치로 중단된 교역국들을 신속하게 대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7년 외환보유액은 155억 달러까지 감소하였고, 총외채잔액은 천연가스 개발 및 LNG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GC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중장기 위주의 외채구조, 풍부한 대외자산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김희원(☎02-6255-5720)  
E-mail : kheewon@koreaexim.go.kr